나주 강소특구 3년간 창업 48건·기술이전 106건 성과

내년 사업 마무리 앞두고 혁신도시 기관·기업 성과 공유·사업 설명회

한전 "기업 선도형 기술 맞춤 지원"·한국그리드포밍은 우수 사례 발표

나주 강소특구육성사업이 내년 마무리를 앞두고 지난 3년간 창업 48건 등의 성과를 냈다.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성처는 최근 나주 혁신산단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나주 강소특구사업 성과 공유·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됐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연구·개발(R&D)특구로 육성하는 제도다. 나주 특구는 한국전력공사를 기술 핵심기관으로 하는 최초의 공기업형 연구개발특구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12억원을 투입해 지능형 태양광, ESS(에너지저장) 등 에너지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강소형 창업육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신규 창업 48건, 공공기술 이전 106건, 연구소 설립 20건 등의 성과를 냈다. 48억원 규모 기술사업화도 이뤄졌다.

나주 강소특구사업에는 나주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등 지역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했다. 설명회에는 나상인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과 이상연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 백종현 산학연협력실장(강소특구사업단장), 김강식 에너지신기술연구원장 등 강소특구 관계자와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강소특구·혁신기관 주요 사업 실적 발표와 우수기업 사례 발표, 2024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에너지 국제행사 소개, 2024년 강소특구·혁신기관 사업 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등이 진행됐다.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연 '나주 강소특구사업 성과 공유·사업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한전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기업별 최대 1억원의 시제품 제작, 경영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스케일 업(Scale up)' 사업을 포함해 25억원 규모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 추격형 기업이 기술 선도형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수기업 사례 발표는 강지성 ㈜한국그리드포밍 대표가 맡았다.

그리드포밍 기술은 분산된 에너지원을 연결해 하나의 전력망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그리드포밍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되고 에너지 기술마켓에서 공모한 K-EMT(고속 전자기과도 모의장치)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에 지정되는 실적을 올렸다.

나주시는 오는 4월3일 열 '2024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와 9월 개최 예정인 '에너지 국제행사'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나주시는 에너지 유관 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요청했다.

나상인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기반으로 혁신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복지재단, 올해 사회복지시설·단체 10개 사업 확정

사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담양군복지재단이 올해 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를 대상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사회복지 시설·단체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공모를 시작해 16개 시설·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개 사업을 확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담양군향촌노인종합복지관 '황혼의 프러포즈' ▲샘물지역아동센터 '고장을 알고, 역사를 배우자' ▲월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LED 전등 설치 지원사업' ▲대치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체험형 리빙랩 프로그램' ▲혜림종합복지관 '움직이는 복지세상' ▲담양군 가족센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한국어 교육' ▲낮은자의집 '공동 치유 정원 조성' ▲담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장나눔행사' ▲금성요양원 '지역연계 여가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담양읍 삼만리에 있는 담양군 복지재단 전경.

재단은 선정된 시설·단체에 사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옥 담양군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협력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빨라진 개화기…장성군 과수 화상병 예방 총력

334개 농가 방제 약제 3종 지원

장성군이 올해 사과·배 개화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과수 화상병'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장성군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334개 농가 256㏊ 규모 농지에 방제 약제 3종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상병은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세균병이다. 전염성이 높아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즉시 폐원하고 기주 식물 재배를 2년간 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평년보다 사과 개화기가 8~10일, 배 만개기는 2~4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화상병을 예방하려면 꽃이 피기 전 1회, 꽃이 핀 후 2회 총 3회 방제를 해야 한다. 방제 작업을 마친 농가는 약제 방제확인서와 약제 봉지를 1년간 보관한다.

농가에서는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5~6월에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장성군 농업기술센터(061-390-8433)로 신고해야 한다.

장성군은 사과·배 농가에 대한 현장 지도를 추진하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화상병 예방 준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과수 상태가 좋지 못한 과원은 요소 0.3%(500ℓ당 1.5㎏), 붕산 0.1%(500ℓ당 0.5㎏)를 화상병 1차 방제약제 살포 때 섞어서 뿌리면 저온 피해를 줄이고 착과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세계 각국 낚시객들 6월 강진 마량항서 '손맛 대결'

피싱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발대식

민간 투자기업 SDN과 업무협약도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내로라하는 낚시객들이 오는 6월부터 강진 마량항에 모여 손맛 대결을 펼친다.

강진군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2024년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순철 강진 부군수 등이 참석한 발대식에서는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선포 및 대회 일정 발표 등을 통해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의 공식 첫 행보를 알렸다.

조직위(공동위원장 강진원 강진군수, 최기혁 SDN 대표이사)는 강진군, SDN 및 관계사, 민간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 전문가로는 TV 프로그램 '도시어부'에서 실력을 선보인 신동만 프로와 최운정 프로가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 시행된 이 대회는 전국에서 1200여명이 참가해 강진군 마량 인근 식당, 카페, 편의점 이용 등 지역경제에 훈풍을 몰아왔다. 대회 이후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누적 이용객이 확연히 증가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군에서 파악한 경제유발 효과가 14억원에 달해 마량 지역상권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올 대회는 오는 6월 대형 어종(부시리, 방어) 시범라운드를 시작으로 열린다. 당초 8~11월에 감성돔과 두족류 2개 분야로 분야당 예선 2회, 본선 2라운드, 감성돔 결선 1회를 치러 총 9회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대회의 다양성과 세계 낚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어종 시범 라운드와 본선을 더해 총 11회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회 중계는 MBC 스포츠 플러스가 맡아 진행한다.

강진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낚시대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민간 투자기업인 SDN과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산 킨텍스에서 조직위 발대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어 오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될 '부산국제보트쇼'에서 대회 홍보가 예정돼 있는 만큼 조직위 행보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발대식 행사에 참여한 서순철 강진군 부군수는 "지금은 국내 낚시객 1,000만 시대로 강진군은 마량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올해 개최될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를 통해 마량항이 서남해안 바다낚시 메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군 보건소 직원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을 받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22일까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

95명 1인당 30만원 지급

함평군이 오는 22일까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첫 학교생활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지난해 103명에 이어 올해는 95명의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22일까지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갖춰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함평군은 자격 확인을 한 뒤 오는 4월 초 축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함평군은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를 통해 안내문을 각 가정에 전달했다. 소셜미디어(SNS)와 자치회보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의 미래인 함평 사랑둥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출산·양육 시책을 통해 함평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민원 응대 공무원

심리상담센터 분기별 운영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이 최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장흥군이 민원 응대 공무원9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센터를 분기별로 운영한다.

'민원공무원 심리상담센터'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폭언, 협박, 폭행 등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원 응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는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 중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했다.

장흥군은 심리상담센터를 분기별로 진행해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이 민원 응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장흥군 제공〉

화순군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1500만원 부과

화순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733건 1억1500만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 환경 개선 비용을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 나이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이 기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식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농협과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내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5)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